

KÓKKOS

2020 MAR
VOL. 216

3



교정에 봄은 왔건만 주인은 언제쯤…!

코로나 19 사태로 개강이 연기된 3 월의 교정은 적막했다 .

정문 근처 성은동산 교훈비 옆의 연분홍 진달래가 가냘픈 고개로 교문을 응시하고 있다 . 학우들을 기다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아가서 6:13)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www.bible.ac.kr

발 행 인 _ 강우정

편집주간 _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TEL _ 02-950-5401

2020 신학기 시작은

혼돈 가운데 질서

각 부서 차질없는 출발 위해 준비 만전

학우들, 공지사항

꼼꼼히 읽고 잘 따라 주길

2020 학년도 1 학기의 시작은 우리대학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개학이 예정일인 2 일에서 1 주일 연기되어 9 일 개학하게 되었고 그나마도 신입생들의 입학식도 영상으로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모두가 코로나 19 때문이다.

입학식뿐 아니라 처음 3 주간 (3 월 9 일부터 29 일까지) 강의나 모든 학교활동을 online 상으로 하게 된다. 3 주간 동안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립교육부

교목실

개강수련회 (Faith Training) – 취소

매년 신편입생을 맞아 학기 초 (3 월 제 2 주 월 ~ 수) 양수리수양관에서 갖던 합숙 훈련은 취소되었다. FT에는 학생, 교수, 직원, 형제기관 직원까지 성서인 모두가 함께하던 2 박 3 일의 단합 출정식이었다.

개강예배 – 9 일 12 시 로고스홀. 교수, 직원들은 평소와 같이 로고스 홀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학우들은 online 으로 참석. 예배 순서는 같고 총장의 권면이 있다.

전 과정이 녹화되며 학우들은 학습관리시스템 (LMS) 을 통해 오후 3 시 이후밤 11 시 59 분 까지 접속하여 예배에 참석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매일채플 – 매일 12 시 로고스홀. 교수, 직원들은 개강예배와 같다. 학우들은 online 으로 참석. 동일한 예배 순서. 출석 체크는 개강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우들은 개강 전 (27 일) 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신 · 편입생신양상담 – 3 월 18 일 (수요일, 오후 2:30–3:20) 에 예정되었던 신 · 편입생 신양상담 연기. 일정 추후 학과별로 공지한다.

신양훈련과

수요전도 – 우리 대학이 전통적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다. 각 반은 담당교수와 학과 학년을 초월한 학생으로 구성되어 전도훈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도전을 배우게 된다. 1 주는 복음에 대한 설명, 2 주는 다양한 복음 전도의 방법들 3 주는 봉사와 전도와의 관계를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된다.

학생생활상담센터

학생실태조사 / 심리검사 – 2020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3 월 18 일 수요일 (오후 1:30–2:20) 로고스 홀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학생실태조사와 심리검사는 3 월 23 일 (월)부터 3 월 27 일 (금) 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자로 공지한다.

전공교육부

✓ 전체 공통사항

모든 강의는 강의녹화시스템 (Panopto) 을 통해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학우들은 자신이 신청한 수강과목 수업 요일에 맞춰 학습관리시스템 (LMS) 에 접속하여 해당과목 교수가 주차 별 학습 활동에 탑재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된다. 출석은 해당과목 교수가 부가적으로 제공한 학습활동과 설정된 기한 내 시청 완료시 인정된다. (<https://lms.bible.ac.kr>)

✓ 진로수업

진로수업은 교수가 책임지도 학생과의 유선 및 이메일 등으로 일대일 비대면 상담하여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 성서학과 특이사항

1 학년 BRC 는 성경구절 자막과 음성이 있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해당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성경을 읽어주는 아빠'에 탑재된 동영상으로 운영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학우들은 매일 (월 ~ 금) 학습관리시스템 (LMS) 에 접속하여 주차 별 학습 활동에 탑재한 동영상에 맞춰 성경을 읽으면 된다. 출석은 해당과목 교수가 설정한 기한 내 시청 완료시 인정된다.

(<https://lms.bible.ac.kr>)

행정본부**3월 9일 (월)부터 3월 30일 (월) offline 수업일까지의 캠퍼스 운영****각 행정 사무실**

모든 행정사무실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 30 분까지 정상 운영. 온라인으로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도서관

평일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정상 운영. 토요일 휴관. 사물함 신청은 인트라넷을 통해 3 월 27 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일립생활관

2 월 28 일 입주가 시작되었다. 입주 시기는 학생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하면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는 48 명의 학우가 입주한 상태.

보건실

3 월 29 일 까지 휴관. 30 일부터는 평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운영.

캠퍼스 출입 통제

교내 출입문 전체가 통제된다. 각 건물별로 ID 카드를 소지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외부인 접근 차단을 위해서다. 이 기간 동안 학생식당도 운영하지 않는다.

소독작업

교내 전 강의실과 기숙사 및 화장실과 연구실과 세미나실 등 75 곳을 대상으로 3 번의 소독작업도 끝냈다. 개강 전까지 최소 매주 1 회 정기소독이 더 진행된다. 특히 모든 출입문의 손잡이와 화장실 내부 및 엘리베이터 등을 중점 소독한다.

유학생 관리 완료

재학중인 중국 유학생(학부, 대학원, 평생교육원 포함)은 23 명으로 이들 중 방학기간에 출국 후 입국자는 총 10 명이다. 3 명은 사태 악화에 귀국했고 나머지 3 명은 2 주간 격리과정을 거쳤고 4 명도 이번 6 일경 격리가 해제된다.

지속적인 기도

교직원들의 아침 경건회에서는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 기도하고 있다.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서' 5 년간 유효 간호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검증



우리대학 간호학과(학과장 고미숙)가 한국간호평가원의 주관으로 실시하였던 3 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평가원으로부터 인증획득과 함께 '인증서'를 전달 받았다. '인증'은 최고 등급이며 획득에 따라 오는 2025 년까지 5 년간 인증자격이 유지된다.

고미숙 학과장은 " 성서공동체 모두의 협력과 기도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우리 대학의 간호교육의 질적 우수성이 잘 검증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증서다. 협력과 수고를 다해 준 교수와 재학생 모두가 보여준 현신의 결과" 라며 감사를 전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학 교육의 질적 발전과 교육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실시한다. 인증평가단의 실사를 거쳐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불가'의 등급으로 나눠진다. 국가는 2017 년부터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한해 간호사 국가고시자격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첫 석사 학위수여식 상징성 살려 학위수여식 조촐하게 거행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5 명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식이 지난 18 일 갈멜관 305 호에서 진행됐다. 지난 2017 년 간호학과 개설 이후 처음 맞이한 석사 학위자 배출이다. 코로나 19 감염예방 차원에서 본교는 물론 다른 대학도 졸업식, 학위수여식을 취소하였는데 첫 석사학위자를 배출한다는 뜻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강우정 총장은 그동안 익힌 전문인의 역량을 현장에 잘 드러내 줄 것과 현신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서인 되어 달라며 축하와 권면의 말을 전했다. 김조자 교수는 여러분 모두가 학업과 신앙을 통해 더욱 성숙한 리더십을 갖췄다며 영혼과 육체의 치유자로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힘써 줄 것을 격려하였다.

간호학 석사학위를 받은 5 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황혜선 ▲ 이유미 ▲ 김지연 ▲ 박은정 ▲ 최윤경

대학혁신사업 1 차년도 마무리 스마트 캠퍼스 구축 등 학습 환경개선 '여호와 이레' 의 하나님 LMS 준비시켜 코로나 19 상황서 온라인 강의 가능!



지난 2018년 교육부의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따라 3년간 진행되는 우리대학 혁신사업의 제 1 차년도 사업이 종결되었다. 혁신사업은 일립교육체계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 4 가지 사업을 축으로 24 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왔다.

1 차년도 사업에서 학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 평범한 학사 운영을 위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체제를 구입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19 사태로 온라인 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LMS 체제를 갖추게 되어 온라인 강의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니면 이런 절묘한 타이밍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며 교수와 교직원들은 과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며 영광과 찬양을 드렸다.

1 차년도 사업을 분석하고 2 차년도 중점 추진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1 차년도 사업의 분석 및 결산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 35% 투자

도서관 걸상 교체, 분진제거 등

1 차년도 사업(사업비 14 억 6 천만)에서 교육환경개선(5 억 원, 35%)이 가장 비중이 높으며 스마트 캠퍼스 구축과 강의실 환경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먼저 네트워크 통신케이블이 기존 100MB에서 1G로 교체되어 인터넷 환경이 크게 높아졌다. 학습관리시스템 구축과 온, 오프라인 용 홈페이지 개편으로 모바일 웹용 등 다양한 브라우저와 연동성이 향상됐다. 온라인 교육의 필수 체제인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은 위에서 이미 지적했다. 그 외에도 전산실용 서버 2 대, 컴퓨터 실습실 PC와 책걸상 등의 교체로 스마트캠퍼스 기반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강의실 환경개선분야에서는 도서관을 꼽을 수 있다. 열람실 용 고정형 의자 220 개 전체를 쿠션감 있는 굴림형 의자로 교체, 공간 전체의 정숙성이 더 나아졌다. 도서관의 장서(藏書)에 기생하고 있는 각종 유해균의 살균 및 공간 내 분진제거와 전체를 커버해 줄 공기청정기의 설치로 건강과 쾌적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를 낳았다. 이밖에도 NSLB(No Student Left Behind)에 근거한 학생지도 비교과 교육 체계 구축 등에서도 의미 있는 학습 성과를 보였다.

1 차년도 혁신사업은 복음전도자 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Hardware) 개선의 목적을 잘 구현시켜 주었다. 교육환경 분야는 2 차년도와 연계돼 보완을 계속 이어간다.

2 차년도 사업은 '학생의 변화'에 역점

학습향상을 위한 유무형의 교육인프라

일립교육혁신을 통한 공동체 인성함양

혁신사업 2 차년도의 핵심은 '학생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1 차년도 달라진 교육환경 개선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를 토대로 학우들의 학습향상 의지와 연계되도록 교육인프라 등의 구축을 심화해 간다.

사업비는 1 차년도와 동일한 14 억 6 천만 원이 책정돼 있다. 1 차년도 사업에서 보완이 필요한 교육환경개선(4 억 2 천만 원, 29%)은 계속 추진된다. 교내 네트워크 보안 및 학사인트라넷 모바일 서비스 개발, 서버 교체 등의 전산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된다. 노후화된 컴퓨터 실습실 집기와 강의실 내 성능이 떨어진 전자 기자재류가 교체될 예정이다. 우리대학의 NSLB 교육철학 실현을 위한 학생 비교과교육체계(2 억 5 천만, 17.5%) 시스템 구축도 관심을 끈다. 학생지원용 통합시스템(LMS) 등의 성능 업그레이드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일립교육(1 억 8 천만, 12.6%) 혁신을 위해 공동체 인성함양과 체험 및 실천적 프로그램 등이 다각도로 전개될 예정이다. 취·창업과 진로 역량(1 억 4 천만, 9.5%) 사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긍정적이다.

우리대학 학우들의 학습참여 전국 최고수준

2019년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보고서 발표

29개 요인 중 25개 최우수
4개 요인만 일반대학 수준

우리대학 학우들의 학습참여수준은 전국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율개선대학(수도권 중소형) 재학생들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육과미래연구소(대표 배성환 교수)가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보고서는 학업관련분야 등 5개 분야, 29개 요인에 대해 실증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 재학생들의 학습과정과 대학생활 경험 차원에서 대학 교육의 질과 성과,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여 기록한 자료이다.

이번 진단에서 우리 학우들은 29개 요인 중 25개에서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습자심리특성요인(3개), 대학만족관련요인(4개), 학생성과요인(12개)은 모두 다른 비교 대학보다 월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학우들은 수업 중 배운 내용에 대해 나와 우리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유의미한 학습경험)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반성적 학습경험). 또 다른 학우들과 협동하는 자세로 공부하며(협동적 학습태도) 다른 전공학우들과 스스럼없이 교통하고, 외국인, 다문화 학우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다양한 그룹과 교류 경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우리 학우들은 학업과 관련하여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학업적 자아개념)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긍정적 학업정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진단이 내려진 요인은 모두 4개이다. 학업관련 분야의 요인 5개 중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요인과 인간관계 분야의 5개 요인 중 3개 요인 즉 '교수관계' 요인, '직원관계' 요인, '교우관계' 요인 등이다.

학우들은 수업자료 읽기, 과제, 실험 작업 등 수업 전 준비와 수업 후 노트 정리, 복습, 다른 읽기자료 탐색 등이 타 대학생에 비해 시간을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와의 관계분야에서 교수와 수업에 관련된 활동이나 질문, 토론 등이 부족하였고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학습참여 면에서 관찰해 보면 학우들은 교수, 직원, 다른 학우와의 학문적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2019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담당자 _ 배상훈 교수 일문일답



▲ 배상훈(성균관대) 교수

강규성 부총장을 비롯한 우리대학 관계자들은 지난 2020년 2월 18일 『2019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를 주관한 배상훈 교수를 만나 우리 대학 교육 실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Q : 2019 K-NSSE 보고서는 우리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가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배상훈 :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자료 처리 과정의 실수 여부를 재차 검토해 볼 정도였다. 성서대학이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 Q : 교수와 학생 상호작용은 매우 높은데 교수관계, 직원관계, 교우관계가 낮게 나온 원인은 무엇인가?

배상훈 : 그 지표는 질적 만족에 관계된 것이다. 즉 상호작용이 높더라도 그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만족이 적다는 것이다.

▲ Q : 이번 조사로 나타난 우리 대학의 문제와 개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배상훈 :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종교교육(일립교육)이 교육학적 배움의 교육으로 느끼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성서대가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교육이 강압이 아닌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본시설을 확충하여 외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와 나를 동일시하는 느낌이 들어야 학교에 오랫동안 남아있다. 셋째, 교수-학생의 공동 연구, 학습 동아리 등을 통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생들이 높은 수준으로 배운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배상훈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교수이다. 2017년 대교협의 연구과제로 학부교육실태조사 연구를 수주하여 K-NSSE 진단도구를 개발하는데 주역을 담당하였다.

본교 컴소 출신 첫 동문 교수

김원빈, 양혜경 교수 신규 임용



▲ 김원빈(왼쪽), 양혜경 교수가 컴소학과 교수로 새롭게 임용되었다.

우리대학 컴소학과를 졸업한 김원빈, 양혜경 교수가 컴소학과 교수로 새롭게 임용되었다.

김원빈(54회) 교수는 서울시립대학원을 거쳐 건국대에서 인터넷미디어공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아이템게임즈(주) 개발팀장을 지냈다. 양혜경(56회) 교수는 이화여대에서 컴퓨터공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 양 두 교수는 지난 4년간 우리대학에서 외래교수로 후배들을 지도해 왔기 때문에 학우들에게 낯설지 않다. 이들은 "후배들이 유능한 컴퓨터 공학도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를 길러 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고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길이라 믿는다"고 신임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임용은 1996년 본 대학이 종합대학 체제로 개편된 이후 배출된 최초의 교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이들 두 교수의 임용을 신호로 2000년대 본교 출신 소장학자들이 우리대학 교수로의 진출이 얼마나 가속화 될지 주목되고 있다.

성서대학 돋기『KBU 2020』캠페인

후원자 2020명 모집, 15억 목표

2020 새 학년도 개학과 함께 성서대학 돋기『KBU 2020』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대외협력실(팀장 박인혁) 주관으로 추진하는 이 캠페인은 2020년 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21일까지 1년간 2,020명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15억을 모금한다는 계획이다. 후원약정은 최소 2만원씩, 2년간 후원을 통해 소망의 꽃을 피우도록 한다.

강규성 부총장은 "학교 재정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설립 후 걸어온 복음전도자 양성의 거룩한 소명이 흔들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등록금 동결이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대학이 어렵지만 특히 우리와 같이 소규모 대학이 더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실은 성서공동체를 중심으로 해마다 9억 원의 후원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적게는 5,000원부터 몇 만원까지 소액이 대부분인데 이마저도 경기 침체로 약 30% 감소되며 실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실에서는 주변에서 우리의 뜻을 협력해 줄 후원자 소개 등을 간절히 기다리겠다며 동참을 호소하였다.

문의 950-5517, 5599

김용수 이사

『KBU 2020』캠페인에
5백만 원

"많은 성서공동체가 참여해 주길"

우리대학 법인 이사로 활동중인 김용수 이사(한양대학교 교수)가 성서대학 돋기『KBU 2020』캠페인에 5백만 원을 후원했다.

김 이사는 "우리와 같은 소규모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걸 보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혼란이 난무해 가는 시대에 말씀 그대로를 실천해가는 성서대학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KBU 2020』캠페인에 많은 성서공동체가 참여해 희망을 담아주길 바란다"며 학교에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용수 이사는 한양대학교 공대학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평가감사실장 최은희 교수 임명



▲ 최은희 교수

간호학과 최은희 교수가 3월 1일자로 평가감사실장에 임명되었다. 이와 함께 대학 내 소폭 인사이동이 있었다. 기획팀장에 김현동, 대외협력팀장에 박인혁 팀장이 임명되었으며 한 때 기획팀장으로 전보 발령 되었던 신지수 팀장의 전보 명령은 취소되고 입학관리팀장으로 남게 되었다. 교수학습센터의 김희 씨는 교학팀으로 이동하였다.

민찬양 목사 신임교목 임명

'삶을 나누며 울고 웃는 주의 사명자'



▲ 민찬양 교목

민찬양(52회) 목사가 교목실 교목으로 임명되었다. 민 목사는 "학우 여러분들과 삶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는 주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헌신을 다 하겠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민찬양 목사는 본교 성서학과와 신대원(23회)을 거쳐 최근까지 상계동 신작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펼쳐왔다.

교수학습센터

홍세영, 서의영 연구원 임명

'삶을 나누며 울고 웃는 주의 사명자'



▲ 홍세영 연구원



▲ 서의영 연구원

교수학습센터에 홍세영, 서의영 연구원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홍세영 연구원은 고려대에서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으로 석사과정을 마쳤고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및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역임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도 흡모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의영 연구원은 경희대에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마포문화재단에서 근무하였다. "학교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홍세영 연구원은 주로 교수지원 연구 및 기획운영을 수행하며, 서의영 연구원은 학생지원연구 및 기획운영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수학습센터의 모든 일은 이성아 센터장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 2 대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권정아 센터장 취임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

제 2 의 도약 이뤄낼 것



▲ 권정아 센터장

권정아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총괄팀장이 3월 1일자로 동 센터의 제 2 대 센터장으로 승진, 취임 하였다. 신임 권정아 센터장은 "센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가는 곳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센터는 노원구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정의 동반자로서 직원 한명 한명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정으로 제 2 의 도약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아 센터장은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2008년 설립) 창립멤버로 초창기 국내 육아종합센터의 모델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대학 사회복지학과(52회)와 보육대학원 석사를 거쳐 동양대에서 유아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전임 김승옥 센터장은 연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핀테크 개발의 중심

컴소 예상국 동문

1 학년 전과목 F 학점에서
반전 드라마 주역

레이니스트 사(대표 김태훈)가 운영하는 혁신금융 서비스 '뱅크샐러드'에서 백엔드(backend) 개발자로 활약하는 예상국(60 회) 동문은 요즈음 각광을 받고 있는 핀테크(FinTech 또는 Financial Technology) 계에서 유망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가 참여하고 있는 '뱅크샐러드'는 개인의 금융상품 선택부터 관리까지, 사용자의 개인 금융을 책임지는 금융 관리 서비스 회사이다. 흩어진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을 한 번에 모아 관리해 주고 맞춤 솔루션까지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돈 관리 앱으로 알려져 있다.

예상국 동문의 시작은 미미한 것이 아니라 바닥이었다. 2005년 컴퓨터에 대한 막연한 애정 하나만 믿고 성서대학에 입학하였다. 알량한 대학 낭만에 휩싸여 놀자판이었던 신입생 시절, 그의 성적은 받기도 어려운 '전과목 F'였고 당연히 '학고자'(학사경고자)가 되었다. '학사경고장'의 충격은 이외로 크게 다가왔다. 방황이 시작되었고 갈 길은 군 입대 밖에는 없었다.

군 병역을 마치니 25살. 교육진흥원에서 알바로 서버와 데이터 관리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그에게 질문하였다. "대학에 가면 이렇게 능력자가 되는 겁니까?" 그는 답변하지 못했다. 나는 고졸인데.... 순간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길로 학교를 찾았다. 교수님께 공부하겠다며 1학년 과정부터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때부터 전공 공부가 의외로 재미있는 게 아닌가! 학습에 철저히 올인 하였다. 평소 음성인식분야에 관심이 컸다. 공부하면서 틈틈이 음성을 통한 컴퓨터 제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 관련 특허도 출원하고 SCI급 논문도 발표할 수 있었다. 급기야 해외학회의 초청까지 받는다. 입학 10년 만에 드디어 졸업장도 손에 쥐었다. 예 동문은 졸업과 동시에 SK M&Service, 카카오를 거쳐 뱅크샐러드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인생역전의 주역이 됐다. 일부 미디어매체에서는 그의 활약상을 비중있게 소개하고 있다.

예상국 동문은 프로그램 개발자를 꿈꾸는 컴소 후배들을 향해 "기본부터 잘 해라. 스킬이 늘지 않을 때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때가 고비다. 이 고비를 기필코 넘어야 한다"고 말한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여건이 좋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학과 1급 시험 66% 합격할 듯

지난 8일 치러진 제 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참여한 우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의 가채점 결과에 의하면 전체 47명의 응시자 중 31명(66%)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예상합격률 66%는 전년도 83.3%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이다. 관계자들은 시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높아진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대학의 사복 1급 시험 합격률은 전국 평균보다 항상 2~3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3월 1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패기와 열정 가득한

우리가 누구! 성서대학교 20 학번!

질문

- 대학생 된 기쁨은 ● 나를 소개한다
- 한국성서대학교의 첫 인상
- 전공을 선택한 이유 ● 재학 중 도전
- 나의 10년 후? ● 삶의 최종 목표는

코로나 19 여파로 혼란한 가운데 2020년도 성서공동체 가족으로 입성한 새내기들의 자긍심과 포부는 우렁차다. 이 시기를 건너 4년간 이뤄갈 학우들의 소망과 도전을 옮겨본다.

성서학과 김수아 ● 말씀 전파하는 삶을 꿈꾼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남이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환경과 달라서 조금 걱정이 된다.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 밀알정신과 희생의 단어가 떠오른다. 말씀과 사역을 배우고 신양훈련을 통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강의내용을 삶에 적용시켜보는 것과 성지순례에 꼭 도전할 것이다. 학교에서 익힌 학습과 신양 훈련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다. 최종 목표는 주의 말씀이 달지 못한 곳에 직접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꿈꾼다.

사회복지학과 안지민 ● 한적한 시골 경찰이 되고 싶다



대학생으로 과목을 직접 선택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기쁘다. OT 때 “용뱀이”를 외친 장본인. 십자가와 성경책이 떠오를 만큼 색채가 뚜렷한 대학이다. 현재와 미래를 빛내준다는 점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전공 성적 A 학점과 시험기간 중 도서관에서 공부에 몰두하는 것, 10년 후 한적한 시골의 경찰이 되고 싶다. 작은 소형차로 전국을 돌며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 여행지’를 SNS에 올리는 소소한 삶이 목표다.

영유아보육학과 윤성화 ● 행복과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 주는 사람



합격증 받고 OT를 마치고 나니 대학생 된 것이 실감난다. 소외된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친구가 되고 싶어 입학했다. 기독교 대학이라는 점이 큰 인상을 줬다. 어린 친구를 돌볼 때 보람을 가졌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장애 및 이혼가정 아동을 돋고 싶어 선택했다. 장학금 도전과 학회임원의 경험을 쌓겠다. 어린이집이나 아동상담센터에서 동화를 쓰는 작가다. 내 행복과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 주는 사람이 최종 목표이며 꿈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임요한 ● 최종목표는 게임회사 설립



대학생이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기에 기쁨이 크다. 컴소 과대에 도전하고픈 학구열 가득한 새내기이다. 규모는 작지만 환경이 좋고 기독교 지식을 더 늘릴 수 있어 기대된다. 중 1 때부터 프로그래머의 꿈을 가져서 지원했다. 학우들과 게임프로그램 제작에 도전하고 싶다. 기독교적 소양으로 IT 산업을 발전시키는 주역, 최종은 게임회사를 설립해 여러 세대가 즐길 게임을 만드는 것이다. 동기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의지하는 대학생활을 만들어 가고 싶다.

간호학과 박정현 ● 간호사에 강한 자부심 갖고 사는 것



3년간 노력으로 원하던 학과에서 공부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뛴다. 유노윤호처럼 활발하며 긍정적 성격과 적응력 최고인 나를 말하고 싶다. 4년간 공부해 주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것이다. 환자의 입원부터 완치까지 동행해 주고 싶어서 선택했다. 재학 중 간호학과 수석 졸업, 해외 선교와 봉사활동에 도전하겠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내 손길로 생을 되찾는 환자가 늘기를 바라며 간호사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 목표이다!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직원 컬럼
이호섭(예비군 중대장)

죽을 각오로 드리는 예배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갑니다. 어디서나 마스크의 흐름입니다. 갑자기 외계에 온 느낌입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외계에서 온 사람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출입금지이기도 하고요. 마스크는 사기도 힘들어요. 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마스크 사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의 줄이 끝 모르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이 걸릴 것 같아요.

나는 처음부터 귀찮아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기가 생겨 쓰지 않고 있지요. 왜 건강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그런 단순한 생각이지요. 일부러 WHO 와 CDC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미국질병관리본부) 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코로나바이러스 19의 예방수칙을 읽어 보았습니다. 예방수칙에 마스크 쓰라는 수칙은 없었고 오히려 CDC에서는 의료인, 환자 외에는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스크를 애용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어깃장을 부릴 생각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것 맞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지나친 공포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고 듣고 접하는 뉴스들이 이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은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의견은 '안전불감증'이라는 딱지를 받게 마련입니다. 이 사회에서 코로나 19는 더 이상 전염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요, 이념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문제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맞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견딜 수 있을 때 까지 견디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앞 다투어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지는 몰라도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예배, 방송예배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 우리도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세계적 물류회사 페덱스 (FEDEX) 에는 1:10:100 의 법칙이 있다. 제품을 만들 때 불량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고치는 데는 1 의 원가가 든다. 그러나 책임소재나 문책이 두려워서 숨기고 기업의 문을 나서면 이를 해결하는데 10 원의 원가가 발생하며, 고객의 손에 들어가서 클레임까지 이어지면 100 의 비용이 든다는 법칙이다.

지금 코로나 19 사태는 1:10:100 의 법칙과 맞물려 있다. 애초에 초기대응을 잘 했었더라면?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악순환이 이어졌을까?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지금,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늑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까지 든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19 발병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카더라 통신' 만 무성할 뿐이다. 모르는 것인지, 계속해 은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지금, 관계당국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하루빨리 원인 규명과 백신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무얼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믿음을 통한 기도, 둘째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셋째는 영양보충이다. 잘못된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거론하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필생즉사 사즉필생' 명언처럼 진정으로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인체에 침투할 수 없을 것이요, 침투했더라도 이겨낼 것이다. 개인위생 관련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마스크가 나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국에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다.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잊지 말고 실천하자.

마지막으로 영양보충이다. 한국인은 어릴 때부터 김치를 많이 섭취해왔다. '김치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높여줘서 바이러스 감염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영양보충의 일환으로 김치를 많이 먹고, 면역력을 높이자. 한국형 유산균의 효력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충분히 발휘되기를 기대해본다. 세계적인 위기 · 혼란이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 위생, 영양보충을 꼭 실천하자.



교수 컬럼
원영희 교수(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컬럼
김대영 교수 (한국교회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단상(斷想)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은 물론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 집단감염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등급인 심각단계로 격상하였는데, 2월 29일 오전 현재 확진환자 2,931명, 사망자 16명, 검사진행 중 29,154명으로 매우 암담한 현실이다.

하루 빨리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적 삶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직접적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예방이 필수적이다. 개개인이 각자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예를 들어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기침예절을 지키는 것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밤낮없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보건 및 방역인력 등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감염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조기치료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백신 개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크나큰 위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 코로나19의 위협에서, 그리고 영원히 죄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성서대가 영적으로 건강한 귀한 공동체로서 죄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백신과 같은 존재,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편 91편 2~3절)"

코로나19가 작은 교회에 미치는 파장

작은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교회 전도사가 신천지 교회 앞 P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작업 도중에 주인과 대화하다가 작은 교회 전도사로 사역중임을 밝혔다. 기독교인이던 주인은 혹시 신천지교회 아니냐?는 질문을 했답니다. 전도사가 당황했지만 '나는 한국성서대 출신이다. 한국 교계가 인정하는 정통 교회라고 자세히 설명까지 해 드렸다.' 그랬더니 주인이 내일부터 일단 출근을 하지 말라. 곧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였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해고 통보. 기독인인 주인도 이러한데 비기독교인 눈에 작은 교회들은 신천지의 처소쯤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코로나 19가 작은 교회의 재정까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후원으로 꾸려 가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당연히 후원의 손길도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원자들을 탓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힘들면 이렇게 해야 좋을까? 저렇게 해볼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어려운데 우리의 형편 안에서 재정을 최대로 활용하여 돋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작은 교회를 신천지의 위장교회로 보는 시선이 더 늘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교회들은 개척 당시부터 세상이 말한 위기에 속하였을지 모릅니다. 교인이 적은 개척교회, 많은 봉사와 재정적 부담 때문에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작은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는 기쁨이 분명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작은 교회가 떠올랐다고 찾아와 격려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큰 힘을 얻습니다. 작은 교회여서 따뜻하고 마치 가족과 같다며 동참해 주신 교인 한 분 한 분에게서도 정말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분명한 건, 작은 교회 목회자가 교인이 적다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서대학교회 담임

구정 날, 아침

구정 연휴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갑자기 잃어버린 돈 생각이 났습니다. 컴퓨터에서 누르지 말아야 할 '포맷'을 눌러 미국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다 날려버린 후에, 복구비용을 생각하던 차에 이 돈이 생각 난 겁니다. 이 반복되는 실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은행 거래가 익숙하지 못한 탓에, 생기는 현찰을 책속에 넣어둡니다. 지난 생일날 아이들에게 받은 돈 봉투를 서랍에 넣으며 '아 이건 잘 둬야지' 생각하고 다시 며칠 후 봉투를 어느 책에 쓱 넣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그 책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지? 아니면 기존 제 서재에 있던 책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사건은 유효기간에 쫓겨서 도서관에 반납한 책들 가운데 그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날을 잡고 도서관에 올라갔습니다. 햇살 잘 드는 도서관 한쪽에 서서 빌려간 책들을 한 권씩 살펴봤습니다. 멀리서 보면 여러 책을 붙잡고 열심히 읽는 제 모습에 여러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없어진 봉투를 찾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찾아주는 이 없어서 그 안에 빛바랜 종이 사이로 손가락을 대고서 쭉 훑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톡 하고 어디서 떨어지거나 책장 사이에 돈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도서관 뿐 아니라 목양실 책을 보면서도 몸에 밴 습관은 기존 책을 붙잡아 툭 하고 흔들어 봅니다. '어딘가 있겠지…' 과거 미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끼어뒀던 백 불짜리를 발견하고, 하늘을 나는 듯 한 감격을 맛보았는데, 또 그런 감격이 있겠지요. 곧…

어릴 때 먹었던 설날 음식 중의 최고는 소고기 무국이었습니다. 동그란 원을 형성하고 떠 있는 소고기 기름이 무우에 겹쳐 있으면, 가만히 놋수저를 넣고 떠 먹어야 하는데, 언제나 저는 그 국에 밥부터 집어 넣습니다. 갑자기 들어간 밥 때문에 국물이 넘쳐나는데 그게 아까워 손가락으로 막았던 기억이 납니다. 국과 밥알이 하나가 되고 그 위에 장독에서 가져온 김치를 손가락으로 길게 잘라 함께 먹으면, 뜨거운 밥알과 찬 김치가 잘 어우러져 감칠맛을 내곤 했습니다. 60년대 그 소고기 무국이 그립네요. 두꺼운 솔뚜껑을 밀어 내시면서 그 국물을 떠 주시던 엄마의 손도….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68

어느 봄날 _ 나희덕

청소부 김씨
길을 쓸다가
간밤 떨어져 내린 꽃잎 쓸다가
우두커니 서 있다
빗자루 세워두고, 빗자루처럼,
제 몸에 화르르 꽃물 드는 줄도 모르고
불타는 영산홍에 취해서 취해서

그가 쓸어낼 수 있는 건
바람보다도 적다



https://search1.kakaocdn.net/argon/0x200_85_hr/3AKqKetOqg4

길을 쓸던 청소부 김씨, 우두커니 서 있다. 빗자루 세워 두고 빗자루처럼 서 있다. '저 많은 쓰레기 언제 다 치우나'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쓸어낸 만큼 거리는 깨끗해지겠지' 생각하면서,

꽃잎 쓸던 청소부 김씨, 우두커니 서 있다. 화르르 제 몸에 꽃물 드는 줄도 모르고 서 있다. '저 많은 꽃잎 언제 다 쓰나' 생각하면서, '떨어져내린 꽃잎처럼 우리네 삶도 이렇게 떨어지겠지' 생각하면서,

불타는 영산홍 아래 우두커니 서 있던 청소부 김씨, 먼 하늘 바라보다 '내가 쓸어 길이 깨끗해지면 지구 한 편이 환해지겠지' 소박한 웃음 되찾으며 빗자루 부여잡았다.



▲ 졸업식을 마치고 입구에서 부모님과 축하 사진을 담고 있다.

특별한 추억의 졸업예배

2019 학년도 졸업예배가 20일 대학어린이집에서 진행되었다. 졸업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학부모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졸업반인 소망·사랑반 유아들과 원내에서 가졌다. 안미희 원장의 기도, 졸업장과 상장 수여식, 부모님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졸업축하 영상편지, 동생들의 송별가 영상 순서로 진행되었다. 졸업식을 마친 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마련한 레드카펫을 걸으며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과 만났다. 학부모들은 "아이의 첫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축복 가득한 퇴장길이어서 만족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대학어린이집의 모든 교사는 졸업한 유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랑반 교사 장지영]



▲ 복지관을 방문한 내방객을 맞기 위해 2층 사무실 벽을 헐고 단장하였다.

선제적 행정서비스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올해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활동을 새롭게 실천하고 있다. 첫째, 복지관 1층 로비에 매주 1회 주민과 소통의 자리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각종 설문조사와 복지관의 사업 홍보도 병행한다. 둘째, 월계주공 1단지 신규 전입세대에게 방문 및 내방 상담을 펼치고 있다. 전입세대 각 구성원의 욕구 파악 후 맞춤형 지원책 등을 안내해주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구현이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2층 사무실을 개조하여 안내 및 접수창구를 구축하였다.

복지관을 방문한 내방객에게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줄 친화적 공간으로 향후 효율성이 기대된다. 이처럼 월계복지관은 주민과 열린 마인드를 통해 섬김의 모습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서비스 1팀 / 흥유민 사회복지사]



▲ 졸업하는 유아들에게 축사하고 있는 김신덕 원장

흥겨운 졸업식

지난 21일 꿈빛어린이집 제 27 회 졸업식이 어린이집에서 열렸다.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학부모를 초청하지 않았으며 한지윤 어린이 외 21 명의 졸업생과 교사들만 참여했다.

김신덕 원장은 졸업하는 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슬기롭게 자라준 것이 고맙다. 앞으로도 꿈을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축사 하였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졸업생이 마련한 특별순서도 이어졌다. '내가 바라는 세상'의 동요에 맞춰 유아들이 랩과 율동을 이어가는 등 흥겨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에게는 영상 졸업식과 외부 포토 존 공간을 마련해 추억을 새기도록 배려하였다. [나리반 특수교사 박연희]



▲ 시니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이윤기 박사

시니어 행복지수 올리기

성서대학교회는 '시니어 행복지수 올리기'라는 주제로 65 세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특강을 총 5회 진행하였습니다. 이윤기 박사가 성경인물을 중심으로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펼쳐갔다. 성도들은 주제를 잘 드러낸 본문을 통해 진정한 신앙인의 행복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됐다며 크게 공감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새롭게 세워진 사랑방장들과 함께 4주 동안 사랑방장 교육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개관과 맥체인 성경읽기를 어떻게 읽고 활용할지에 대해 임승민 목사(담장너머교회 담임)가 실질적인 강의를 해 주었다. 사랑방장 모임의 핵심이 성경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목사 김문응]



▲ 조진아 원장이 원아에게 수료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따뜻한 수료식

지난 2월 21일 제 15회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7세 원아들의 입장과 함께 시작된 수료식은 원장의 축하인사, 재원생들의 축복송, 수료증서 수여, 수료생 가족들이 보내준 수료축하영상 시청하기 순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수료하는 형님들을 향해 큰 박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수료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수료생들도 동생들을 향해 "떠나게 돼 아쉽다, 보고 싶을 거야", "밥 골고루 먹어"라고 말하며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정을 나누었다. 알림장을 통해 수료영상을 본 학부모들도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매일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서 고맙다. 그동안 건강하고 멋지게 성장하도록 잘 이끌어준 교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맑은반 교사 고하은]



▲ 도담도담나눔터 내부에 잘 정돈된 장난감들이 놓여 있다.

도담도담나눔터 봄 맞이

새봄에 대비해 도담도담나눔터 내부를 봄나들이용 환경으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봄나들이 환경은 봄 소풍, 음악 연주회, 연못 징검다리 건너기 (신체활동) 등을 배치해 봄이 공간 안에 잘 드러나도록 화사하고 정감 있게 꾸몄다. 이곳에는 분기별 매력적인 환경 조성 및 지점별 다양한 장난감과 도서류 비치로 이용자 모두 즐겁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현재 국민 전체를 위협하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차원에서 본점을 제외한 각 지점(5개소)은 휴관을 택하고 있다. 지점들은 이 기간 동안 안전한 환경을 위해 장난감 세척과 소독 등으로 재개관을 준비하게 된다. 상계 1동, 공릉 2동, 월계 3동, 중계본동, 상계 1동 도담도담나눔터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봄맞이를 함께 할 영유아와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

[보육전문요원 이수연]

「 2019 학년도 제 9회 졸업식 」

지난 20일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제 9회 졸업식을 가졌다. 코로나 19로 학부모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유아들만의 특별한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만 4세반 동생친구들의 참여 속에 1년간 지내온 영상과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를 함께 감상하였다. 만 4세반 형님들에게 보내는 감사편지와 노래까지 이어지며 졸업식의 의미가 깊어졌다.

참석을 못 한 부모님께서는 대신 졸업식을 전문영상으로 촬영, 졸업식의 모습을 담아 주었고 외부 현관입구에 포토 존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또한 포토 존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노래도 불렀는데 학부모들은 "함께 참여하지 못 하였지만 영상으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온누리반 교사 김수진]

졸업식 이야기

지난 21일 늘사랑어린이집의 제 4회 졸업식이 개최되었다. 어린이집을 떠나는 졸업자가 9명이었는데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학부모는 초청하지 않았다. 졸업식은 동생들의 힘찬 박수와 응원으로 시작돼 노래선물과 1년간의 생활 동영상을 시청했다. 순간 순간의 추억을 접하며 웃음과 아쉬움을 동시에 갖게 하였고 원장과 담임 교사가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로 졸업식은 더욱 숙연해졌다. 마지막 순서로 교직원 일동이 졸업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간절히 염원하는 축복 기도로 사랑과 정을 다시 한 번 새겼다.

유아들은 교직원과 포옹하며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원장과 교사 모두 재원생과 신입생을 위해 더 좋고 믿을 수 있는 늘사랑어린이집을 다짐하였다.

[신나는반 교사 변윤선]

졸업식

지난 18일 만 5세 하늘반 친구들의 졸업식이 어린이집 내 놀이실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 19 여파에 따라 한 분의 부모님만 모시는 최소의 졸업식으로 진행됐다. 졸업식장의 하늘반 친구들은 긴장이 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다.

졸업식은 졸업장 수여와 각 친구들의 개성에 알맞은 상장 수여식, 지난 1년 동안의 즐거웠던 추억을 회상하는 영상 시청이 이어졌다. 언니 오빠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만 4세 이예나 어린이의 멋진 송사가 있었고 하늘반 친구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답사를 해주었다. 소감에서는 어린이집을 떠나게 돼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많지만 초등학교에 갈 것이 설레고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하늘반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도 지금처럼 밝고 행복한 어린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사 김연수]



▲ 졸업식 주인공들과 선생님이 함께 모여서.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0년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강우정.강진(총장)	750만원(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610만원(운영)	김종완(동문)	100만원(장학)
한국라이온스	200만원(장학)	교수부	100만원(장학)
전안나(동문)	102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2구좌	교직원 및 가족	서문교회
0.5구좌 이아람		1구좌 김다윗 김미영 김유진 김지현	1구좌 박경자
1구좌 강재현 구세경 기상혁 김가영		이문자 요시다고조	주향교회
김민아 김민주 김수연 김예인	3구좌 권민선 김민주 김예지 김지수	2구좌 박태용 오철송	1구좌 유병우
김은주 김재한 김정례 김혜영		3구좌 김은영 김창현	함평대동교회
남경숙 남성휘 노명민 박성준		5구좌 박인혁	1구좌 김희경
박찬미 변지윤 서민경 송채경		10구좌 김태규 최육열	일반
신미선 신태양 오세천 오유림		13구좌 강규성	1구좌 김동우 김유벽 송수용 정은영
이민주 이수진 이주연 인지혜		100구좌 강우정.강진	단체 및 기관
임창열 전미영 조수빈 조하영	4구좌 배정환	부설기관	4구좌 주님의교회
주민자 채예빈 최자우 최현정	5구좌 송지언 장효정 최송희	1구좌 이다솜 최미정	5구좌 충은교회
한아름		5구좌 신영자	10구좌 상록교회 청평교회
1.3구좌 임지현	재학생 및 가족	15구좌 김화영	
	1구좌 서 용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강동란 김샛별 민이삭 정다운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박윤복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홍정심 황선명 황승호 황형록
강은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은실	황희준 설에스더 신에스더
강현미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이은영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1만5천원 이예람
구본길 구본삼 구본철 구세경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민정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진주	2만원 강재현 고난홍 구연민 구진경
권명순 권슬기 권유철 권은지	배은휘 배창경 배혜인 배효순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국소영 김기옥 김미나 김미향
권정인 권 준 권희조 금동옥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김복녀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경혜	변지윤 서규원 서유미 서정민	이화연 이환기 이환희 이희윤	김연주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다솔 김도훈 김명희 김무엘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순애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민겸 김민정 김민정 김민음	성한나 손명래 손명화 손윤숙	임찬웅 임창열 장세진 장윤국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김병렬 김보희 김선근 김성균	손주현 손진규 송민규 송석배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다현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문홍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향숙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소영	박재송 박연옥 성낙표 성용제
김승현 김승훈 김승희 김영우	신경자 신대민 신마선 신은혜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신정섭
김유미 김유진 김은석 김은주	신종수 신태양 신헤영 심두한	정금숙 정다면 정다운 정선도	신정화 신화영 오상석 오정순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정성희 정영교 정인철 정재연	오찬양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지선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경애	이구용 이기용 이기주 이상복
김 진 김진영 김진하 김춘덕	오세천 오은희 오찬미 오채엽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왕지희 용아름 우승연 우종엽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김현진 김혜영 김화태 나선영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조인순 조태환 주민자 주진우	이춘석 이충희 임은희 장재원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유소담 유수정 유양숙 유영진	지영환 채예빈 채유신 채종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영용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류요한	유주홍 유지영 윤솔이 윤영원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정옥순 정 완 정주영 최선옥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광석	최아란 최예본 최예슬 최인호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문성령 문수란 문홍철 민정은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하지혜 한민수 흥진옥
박경수 박명우 박성준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탁국현 하수현 하진우 한경순	황보혜영
	이병주 이보아 이상용 이상준	한상장 한원창 허영숙 흥금주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권삼희

기부자 명단